
		<h2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2>	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광역시 </div>	
		배포일자	2021년 3월 15일(월) 총 3매		
담당 부서	감사관실	담당자	• 공직감찰팀장 이승렬 ☎440-3161 • 담당자 김두환 ☎440-3162		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2px;">사 진</div>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2px;">참고자료</div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 padding: 2px;">보 도 시 점</div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신도시 등 공직자 투기 의혹 공익제보 핫라인 가동

- 3.16일부터 운영, 대상은 시(공사·공단)와 군·구 공직자 및 가족 등 -
-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및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 부지 -
- 부동산 투기 의혹, 차명 거래,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혹 등 제보 접수 -
- 직접 제보 및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통한 익명 제보도 가능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3월 16일부터 시, 군·구 공직자들과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는 ‘공익 제보 핫라인(Hot-Line)’을 가동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시민들의 공익제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.
- 제보대상자는 시와 공사·공단, 군·구 소속의 공직자 및 직원 본인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. 제보내용은 3기 신도시 대상

지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, 제보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차명 거래 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혹 등을 모두 포함한다. 이와 관련한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‘인천시 공익제보 핫라인 (☎032-440-3162~5, 3188)’ 으로 제보하면 된다.

- 또한, 시는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‘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(Help-Line)’ 를 통한 익명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.
- 시는 핫라인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투기 의혹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자체 징계는 물론,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 의뢰 및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.
- 아울러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인천시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제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
- 한편, 시는 정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부터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 내 4개 팀과 인천도시공사, 계양구를 포함한 자체 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이며, 정부합동조사단에도 참여해 관련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.

- 김인수 시 감사관은 “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통해 시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하고, 정부합동조사단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며, “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등은 철저히 보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” 고 말했다.